

서평

經濟は地理から學べ!

(경제는 지리에서 배우자!)

宮路秀作(미야지 슈사쿠), 2017, 東京: ダイヤモンド社(다이아몬드사), 269쪽.

韓柱成\*

일본에서 연간 3만부의 책이 팔리면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은 6만부가 팔려 저자도 놀랐던 비즈니스맨의 일반서이다. 일본인은 역사를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까라는 점이 연상되었듯이 기획 당시에는 '지도에서 배우는 일본경제'라는 제목을 위와 같이 바꾸었다고 한다. 지리를 배우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익하다는 점을 가지게 해야 하고, 또 지리는 여러 학문의 지식과 견해를 빌려 종합적으로 부감하는 것 이상으로 범용성이 높다는 장점과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어렵다는 단점을 아울러 가지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宮路, 2017, 83-85). 이 책은 序章에 4개의 주요어와 지도로 읽고 풀이하는 40개 주제 및 마치면서와 배경을 알면 통째는 재미있다는 특별부록을 붙였다.

먼저 서장[경제를 붙잡는 지리의 視點]에서는 4개의 주제, 즉 자연, 스케일, 자원, 거리에 대해 기술했다. 아이슬란드가 자연환경으로 인해 수력·지열의 재생에너지를 많이 산출함으로써 값싼 전력으로 알루미늄 공업을 발달시켜 좋은 토지는 인간의 경제활동에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준다고 했다. 다음으로 스케일에서는 事象을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하는가에 따라 스케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사목적에 맞는 최적의 스케일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쿄 도심부의 여름기온이 높은 것을 지구온난화

의 지구적 규모에서 살피는 경우는 적다하고, 대도시 근교에서 발달하는 철강업은 철광석을 사용할 때 철소가 수입에 편리하고 냉각수 획득이 용이한 연안부에 입지하며, 세계적 수준에서 제조업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입지하므로 스케일을 정확히 파악하면 경제가 보인다고 했다.

다음으로 자원의 쟁탈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원이 유한하고 편재되어 있기 때문인데, 특히 서남아시아의 석유는 지정학적 위험이 큰 자원이라 했다. 다음으로 거리에서 경제는 물리적·시간·경제·감각거리의 네 가지에 의해 움직인다고 했다. 그러나 감각거리보다는 인지·지각거리로 구분하고, 경제거리가 비용·시간거리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밝혔으면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제1장[입지: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해석하는 경제 전략]에서 먼저 일본의 경제 전략은 자원 수입국에서 예측할 수 있다며, 에너지·광물자원의 주요 수입국으로서 수송비와 국가정책 등의 특징을 밝혔다. 또 위치에 유리한 인도의 실리콘밸리에서 IT산업이 발달한 이유가 미국과의 시차, 영어사용, IT기술자는 카스트 제도에 예매이지 않고, 졸업 후 파격적인 보수를 받는다고 해 16개 국립대학의 총칭인 IIT(인도공과대학) 입학률이 약 53대 1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는 네덜란드가 최대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수입국인데, 이는 국제하천 라인 강 하구에 입지한 로테르담 항구가 유럽 포트(port)로 이 지역에 세계 최대급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해 석유코비나트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네덜란드는 가공된 석유 제품을 라인 강을 통해 독일, 벨기에, 프랑스로 수출하는 유럽 시장의 현관으로 이 입지가 경제성장의 최대 요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영국의 EU가맹이 아시아, 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1973년 영국이 EC에 가맹함으로써 유럽경제의 전환점이 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는 목양과 철광석 개발로 영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지만 아시아와 태평양 제국과의 연결을 중시 여겨 ASEAN, APEC를 결성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의 열쇠가 저임금인데, 스페인이 선진국으로 된 것은 유리한 위치 때문이라 했다. 그러면서 선진공업국의 최대 수출 품목은 기계류인데, 스페인은 종래 수입대체형 산업화정책에서 싼 임금으로 독일과 프랑스의 기업들을 유치해 자동차와 기계류를 주로 수출함으로써 수출지향형 산업화정책으로 바꾸어 자동차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페인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동부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라 자동차 생산거점이 이동해 스페인은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지만, 동부유럽에 대중승용차를 넘겨준 대신 소량의 고품질 소형차나 미니밴 등 다목적 차량을 생산해 EU에서 2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 연구개발거점으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인도, 타이, 멕시코 최강의 자동차 생산 체제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일본과 한국자동차기업을 소개하면서 차후 그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타이는 1957년부터 일본 자동차기업이 진출해 부품을 수입·조립함으로써 완성차의 1/2 관세로 혜택을 줘 적극적인 해외 자동차기업을 유치하고, 그 후 고용증대를 위해 부품 국산화정책을 도입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켰다고 했다. 1989년 이후 타이는 동남아시아 생산거점으로서 ASEAN역내의 수출을 촉

진시켜 아시아 통화위기, 세계금융위기, 홍수 등의 어려움에도 일본 자동차기업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은 1980년경부터 활발했는데 NAFTA발효 이후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첫째,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한 저렴한 임금, 둘째 미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중남미로 수출이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태평양과 대서양에 면해 있어 아시아와 유럽시장으로 접근성의 용이, 셋째 멕시코는 45개국과 FTA를 체결해 미국 등에 수출하면 무관세이고, 앞으로 중국, 인도, 브라질의 자동차산업 대두로 아시아나 미국시장에 우위성을 잃을 수 있으나 자국내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대국의 주요어는 1위가 기계류, 2위 자동차인데 독자의 전략을 가진 중국, 프랑스, 인도 3개국을 소개했는데, 중국은 1위가 기계류이고 2위가 의류로 풍부한 노동력과 목화가 존재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많은 원료도 수입한다고 했다. 또 프랑스는 기계류, 항공기로 에어버스 항공사가 입지하지만 비행기 제조에 필요한 많은 부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EU역내에서 무역적자국이라 했다. 그리고 인도는 석유제품과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근년 모터리제이션이 경유 소비를 증대해 서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한 원유를 정제하는 산업이 성하다고 했다. 또 다이아몬드 원석은 수출품목 2위로 인도의 하천에서 많이 채굴되는데, 유대인이 설립한 드비아스(De Beers)가 채굴, 가공, 유통에 참여해 이스라엘이 다이아몬드 세계 제일의 수출국이 되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북반구의 중요 거점 앵커리지 공항이 가지는 지리적 우위성에서 냉전시대에는 구소련의 영토를 가로질러 비행할 수가 없었고, 또 북극해를 가로질러 유럽에 갈 수 있는 항속거리의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급유를 위해 앵커리지 공항에 기항함으로써 중계지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이틀테면 시베리아 루트가 개척되고 성능이 비약적인 장거리 무착륙 비행기가 등

장함으로 앵커리지가 기착지 역할의 중요성은 감소돼 급기야 여객기 기착지는 폐지되고 화물기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기지로 바뀌었는데, 이는 값싸고 넓은 토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기착지의 역할로 수송시간이 짧기 때문에 급유량은 적어진 반면 화물적재량은 증대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카스피 해의 원유를 둘러싼 파이프라인 부설에서 조지아의 석유파이프라인의 문제점으로 관리의 어려움, 테러 표적이 된다는 점을 들면서,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에서 터키의 제이한(Ceyhan)까지 석유파이프라인을 직선으로 연결하지 않은 것은 직선으로 연결하면 도중에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의 경제적 제재를 받는 이란이 있으며, 또 터키와 아르메니아와의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간의 종교적 대립 때문으로 조지아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했다.

제2장[자원: 자원대국은 목소리가 크다]에서 먼저 수돗물을 마시는 국가, 자원대국으로서의 일본에서 지구상의 육수 2.5% 중에 지표수는 2.2%로, 생활용수는 하천수를 중심으로 사용한다며 21세기는 물의 세기라 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국가는 단지 15개국뿐이라 하고 일본이 이에 속한다고 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대수층의 물로 재배해 자급하는데, 약 20년 후에 물이 고갈되면 해수의 담수화 확대를 이를 유지하겠지만 곡물의 수입은 매년 증가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자원전쟁! 중국 대 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에 대해, 먼저 중국의 3대 철강 원료산지 입지형인 콤비나트를 소개하고, 중국은 철광석 산출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철 함유량이 30%로 낮아 수입을 하고, 철광석 가격 하락은 철광석을 매개로 한 자원전쟁이라고 규정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은 가격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과점을 유지하기 위해 증산한다고 했다. 그리고 희귀자원인 희소금속이 많은 비극이란에서 희귀금속<sup>1)</sup>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sup>2)</sup>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남아프

리카공화국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공업이 발달해 희귀금속도 세계적으로 많이 산출해 냉전시대에는 서방국가가 아파르트헤이트를 비난하지 못했으나 냉전이 끝난 후 미국 등이 적대국가로부터 희귀금속의 수입이 가능해지자 1991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철폐되어 결국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알루미늄을 알면 자원대국을 알게 된다면 서 보크사이트의 분포와 형성과정 및 전력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자원대국에서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므로 전력생산이 많은 국가에서 알루미늄 생산이 많다는 점을 밝혔다.

대국 러시아를 괴롭히는 체첸공화국의 소리에서는 석유이권과 종교대립으로 두 번에 걸친 독립분쟁이 있었고, 러시아가 기존의 석유파이프라인에 대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이권을 취하고 있으나, 유전을 가진 체첸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자원대국 브라질에 보이는 안정자원이란에서는 지질시대대로 보아 기아나·브라질 고원은 본래 하나의 지괴로 여기에 철광석을 위시해 보크사이트, 희귀금속 등이 매장되어 이들 광물자원을 수출한다고 했다. 그리고 보크사이트는 아마존 강지류에 일본의 공적개발원조로 건설된 수력발전으로 전기분해해 수출하는데 알루미늄 생산기업은 일본과 자본합자를 했다고 하고, 해저유전이 대부분인 브라질의 석유개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다음으로 EU에 가맹하지 않은 실력국인 노르웨이의 정체에 대해 EU의 역사를 설명하고, 노르웨이는 농업이 부진하나 삼림·광물자원은 풍부하고, 수산자원, 수력발전, 원유와 천연가스가 강점을 가지는데, 지형적인 영향으로 수력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해 전기료가 싸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량이 적으며, 향후 원유, 천연가스의 생산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관광산업을 육성시킨다고 했다. 노르웨이가 EU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EU규정에 의해 팔 경우 자국의 이익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아심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다이아몬드 생산국가 보츠와나의 세 가지 지리적 약조건에 대해, 정치적 안정성과 다이아몬드 산출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국가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고, 내륙국가라서 수출에 불리하고, 인구수가 적어 내수시장이 좁아 제조업 등에 외국자본의 투자나 공장진출의 장점이 거의 없어 경제의 다각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제3장[무역: 세계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흥정이란?]에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서 이탈한 점에 대해 TPP의 설명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NAFTA의 재교섭이나 탈퇴까지도 고려했는데, 이는 기업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정말 윈(win) 윈할 것일까? 에서는 폭넓은 경제 강화를 목표로 무역이나 투자의 자유화, 원화화를 진전시키는 협정이 EPA인데, 일본과 체결한 싱가포르, 멕시코와의 무역 장단점을 기술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돈벌이, 풍부한 자원을 자국에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농업과 공업이 주요 산업으로 세계 굴지의 경제력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아가 공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 국내시장의 소규모, 자원산지와 대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물리적 거리 4,000km, 미국은 목재를 구매하는가, 아니면 판매하는지에 대해 미국이 세계적인 삼림국가로 동부 메가로 폴리스 지역의 목재수요는 캐나다의 동부지역에서 수입하고, 미국 서부의 삼림지대에서 생산된 목재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로 수출하는데, 이것은 국토면적이 넓어 서부에서 동부로의 목재 수송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브라질과 유럽을 연결하는 의외의 산업 이란에서 브라질은 소형항공기 산업이 발달했으나 자동차산업은 해외 자동차기업들이 브라질 현지에서

서 생산한다고 했다. 그리고 항공 동맹<sup>3)</sup>으로 등장한 허브(hub) 공항과 스포크(spoke) 공항체계는 수송효율화와 수송량 증대를 가져왔는데, 쉥겐 협정(Schengen Convention)으로 EU역내에서 허브-스포크 노선이 확충됨으로써 소형여객기의 수요가 많아져 브라질의 소형항공기의 수출증대로 생산이 성하게 되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중국 14억 인구를 지탱하는 식자재와 그 위험성에서 중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생활도 변화해 2008년부터 농림수산부 문 무역에서 대폭 적자가 나 식료 안정공급의 중요성이 증가된다고 했다. 그 원인은 동물성 생산품 수입초과 때문이라 했다. 한편 육류, 油脂류의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 가축사료로 대두 소비량이 증대해 수입국으로 변모했다. 그밖에도 국내산 대두와 옥수수 가격의 양등, 가상수(virtual water)<sup>4)</sup>로서 비와 거의 같은 수준의 대두재배 농업용수가 필요한데 공업·생활용수의 증가로 생산 확대가 곤란해져 미국으로부터 최대로 수입하지만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그렇지만 브라질의 대두생산은 기후조건에서 남부지역이 적당한데, 정부는 열대 사바나 기후지역인 캄포 세라드 지역을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해 이 지역 토양에 맞는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을 일본과 농업협력을 했는데, 이것이 브라질 관 녹색혁명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중국이 투자를 서두르는 탄자니아의 잠재력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중국의 아프리카 경제원조 전략은 탄자니아 철도건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철도<sup>5)</sup>는 콩고민주공화국으로부터 잠비아에 걸쳐 존재하는 구리벨트(Copper Belt)에서 산출된 구리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종래 잠비아에서 생산된 구리광석은 짐바브웨를 경유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항구로 보내졌는데, 짐바브웨가 아파르트헤이트로 경제봉쇄를 당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송할 수가 없자 잠비아는 구리의 단일산출국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이 무이자 차관과 중국 노동력도 제공해

1976년 철도를 완공해 탄자니아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탄자니아는 중국과 경제파트너가 되었고,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해 향후 경제시장으로서 매력적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중국이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투자를 한 세 가지 이유는 첫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둘째 타이완을 국가로 불인정하는 전략, 셋째 아프리카 시장개척의 포석이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무역흑자인데도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기제(mechanism)에 대해 산유국인 나이지리아가 원유산지를 중심으로 비아프라(Biafra)공화국을 독립시킴으로서 내전이 일어났고, 또 외세의 대리전쟁, 비아프라의 패전으로 이곳의 수도를 천도했으며, 석유를 얻기 위해 내전에 참여한 프랑스가 제 1차 석유과동으로 원자력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고 했다. 나이지리아 원유는 저유황원유로 품질이 좋아 미국과 인도로 수출했는데, 미국의 셸(Shell) 석유의 품질도 좋다고 해 수요를 치환해 인도로 수출량이 증대되었다고 했다. 또 나이지리아는 수출초과국이지만 다민족 국가로서 政情의 불안정, 원유자금의 일부 특정계급 독점, 또 국내산업의 육성이나 사회자본의 정비 및 빈곤대책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업기회가 적고 문맹률이 높으나 산업의 다각화를 이루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제4장[인구: 미래예측에 가장 강한 인자(factor)]에서 토지도 자원도 적은 일본이 경제대국이 된 이유에서 높은 교육수준과 1억 명이 넘는 인구가 그 바탕이 되었다고 하고, 에도(江戸)시대 서당의 존재와 기업 간 경쟁이 기술수준을 향상시켰는데,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인구가 많아 무역입국이 되었다기보다는 내수의존형으로, 지금은 소자녀화로 인구가 감소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인구증가에 빠질 수 없는 두 가지의 요소에서 수용가능 인구는 취업기회와 식료공급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최종병기가 끝나 지

구가 온난화되어 메소포타미아에서 밀재배가 시작했다고 하였다. 또 1845년 아일랜드에서 감자 부패병으로 대기근을 맞았고 그 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인구보다 미국에 거주하는 그들 후손들이 더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하여 해외기업들을 유치하니 취업기회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대됨으로써 식량공급량이 많고 가용인구가 커져 미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후손들의 귀환도 늘었다고 했다.

인구대국의 공통점은 '다섯 가지 농작물'에서 쌀, 밀, 차, 목화, 감자를 대상으로 아시아에 쌀의 생산이 성한 이유를 들고, 목화와 인구의 관련성에서는 면직공업이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취업기회가 증대해 인구도 증가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인구, GDP, 무역액으로 비교한 최강의 국가군에서 지역통합의 이점과 국가 간 관계에서 본 시장규모를 비교해 해외수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GDP이상의 무역액이 증가된다고 했다.

다음으로 도쿄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에서 도쿄가 연안부에 입지하고, 간토(關東)평야의 배후지가 넓다는 점을 들었다. 또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공통점은 홍적대지와 충적평야 상에 발달했고, 바다에 면해 있으며, 대지상에 성곽·항만도시로 충적평야에는 상업지역이 홍적대지상에는 주택지역이 발달했고, 인구가 증가해 근교로 도시가 팽창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히타치(日立)는 인구가 감소하고, 도요타(豊田)는 인구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엔화 강세로 수출이 부진한 일본 국내기업은 해외에서 현지 생산을 해 1986년 이후 국내의 고용이 감소되었는데, 이에 전기기계회사가 입지한 히타치시의 인구는 감소했으나, 도요타시는 도요타 자동차 기업취락(industrial colony)을 형성해 취업기회를 유지했다고 하였다.

한편 소자녀·고령화에도 판매를 증가시키는 의외의 비즈니스 산업에서 소자녀화가 먼저 나타나고 시간간격을 두고 고령화가 나타난다고 하며, 일본의 출산율의 감소에 대해 고학력화로 미혼여성의 증가,

만혼, 결혼·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양육세대 남성의 장시간 노동이 원인이라고 하고, 특히 플라자(Plaza)합의<sup>6)</sup> 이후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나타나 합계출산율이 감소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낮지만 ‘슈퍼 戰隊 시리즈’라는 방송의 영향으로 완구판매액은 증가했다고 하였다.

한편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폐지, 중국경제의 빛과 그림자에서 1인자녀의 출산에 따른 정적·부적 장려책, 무호적 아동인 黑孩子의 등장 및 소자녀화가 급속한 고령화로 나타나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증대, 노동인구감소로 임금상승을 불러와 2002년 둘째 자녀를 인정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한 자녀정책을 폐지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출산율은 높지 않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인구의 우위성을 갖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급인재가 차례로 태어나는 스웨덴의 이민정책에서 인구가 적어 내수보다 수출에 역점을 두고,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고 인터넷 보급, 시스타(Kista) 실리콘밸리 및 지식집약형 첨단기술 산업발전에 힘을 기우려 1인당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제5장[문화: 의식주의 지역성은 왜 성립될까?]에서 먼저 싱가포르의 수자원을 포함해 자원소국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 전후는 영국, 말레이시아의 식민지였고, 인구의 3/4이 중국계이지만 민족 간의 편애가 적어 해외기업이 투자하기에 유리하다고 했다. 또 싱가포르의 政情이 안정되어 있고 가공무역이 특화되었으며, 세율이 낮고 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있어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장에서 인재육성이 최우선으로 모두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국시로 한다고 했다.

다음으로 소시이지, 감자, 맥주는 하늘의 은혜라는 독일에서는 대륙병화가 덮였던 지역에는 지력이 낮아 프리드리히 2세 때부터 감자를 보급했고, 북부는 내한성 보리, 호밀, 연맥으로 맥주를 제조했으며, 특히 유럽에서 예전부터 돼지를 천연청소기라 해 감자로 사육해 겨울의 보존식품으로 소시이지를 만들

었다고 했다. 16세기 독일은 홉, 맥아, 물, 효모만으로 만드는 ‘맥주 순수령’을 발표해 식용인 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남부독일에서는 밀로 만든 바이젠(Weizen)이라는 맥주생산이 가능해 작물 재배지역에 따라 酒類문화가 다르게 나타난 점을 밝혔다. 그리고 영국의 요리가 맛없다는 정말의 이유에 대해 빙하지역인 영국 주민은 소고기를 잘 먹는데, 과거 아일랜드가 식민지였을 때에는 이곳에서 농산물을 가져다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16~20세기 초 퓨리탄(Puritan) 혁명 이후 신사가 지배계층으로, 이들은 소박한 식사를 즐긴다는 이미지에서 요리발달이 미흡해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후반에도 생선튀김이나 감자튀김, 저소득층은 생선과 칩(Fish and chips)이 고마운 음식이 되었고, 하인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소박한 음식들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했다.

다음으로 세계를 이끄는 뉴질랜드의 낙농에 대해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낙농업이 널리 발달했지만 신대륙으로부터 값싼 곡물이 수입됨에 따라 큰 타격을 입고 농업경영개선을 했다고 하고, 뉴질랜드는 자연환경의 이점과 저렴한 경영비, 짧은 노동시간이 낙농업 발달의 토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이 뉴질랜드로부터 배울 문화란 젊은이가 고령 경영자로부터 토지를 빌려 어느 정도 영농기술을 익힌 후 자금을 모아 토지를 구입해 영농을 함으로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맛있는 포도주는 기후로부터 생겨난다. 예서는 포도주 벨트는 북위 30~50°, 남위 20~40°사이로 연평균 기온이 10~20℃가 최적이라고 하고, 과수는 어느 정도 건조한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포도주는 지중해성기후지역이 우월성을 갖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소고기 수출 세계 1위, 인도를 지탱하는 소의 힘에서는 시바 신이 란딘(Nandin)이라는 乳白色의 황소를 타고 있다해 소를 신성시하고 소고기 먹는 것을 금기시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굴제국 때에 생겨난

니하리(Nihari)라는 소고기를 끓인 요리 등이 인도에서 약 2억 명의 이슬람교도와 크리스티교도가 즐겨 먹는 음식이라 했다. 또 인도의 소고기 생산량은 세계 11위, 수출량은 세계 최대이고, 하얀 혁명이라고 불리는 우유생산은 세계 2위이며, 소가죽 제품의 생산지로도 유명하다고 했다. 마치면서에서 지리란 자연지리나 인문지리의 지식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세상이 보인다고 하며, 지리를 알면 한 국가의 사회·경제상황을 이해하고, 또 역사가 재미있게 되고, 나아가 미래를 읽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책은 경제지역지리의 성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앞부분에 내용에 등장하는 국가를 세계지도에 표시하고, 또 각 주제마다 관련된 도표를 넣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각 주제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주요어로 노동, 자본(자금)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또 제2장 자원부분의 앞머리에 자원 주요어의 내용을 넣었으면 연결이 더 좋으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지리서를 어떤 방법에 의해 다섯 가지 주제어를 선정했으며, 각 주제의 대상을 어떤 기준에서 정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했다. 그리고 책제목이 경제는 지리에서 배우자라고 하면서 문화를 주요어로 넣은 것에 대한 의아심이 드는데, 오히려 문화경제지리학의 주요어와 주제들을 대상으로 삼았으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도 지리학 분야의 교양서가 다수 출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이 팔린 책이 저술되었으면 한다.

## 주

- 1) 희귀금속(rare metal)은 지구상에 부존량이 적고, 기술적으로 순수한 금속으로 채취하는 것이 어려우며, 정련비가 많이 드는 금속을 말한다.
-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취했던 흑인에 대한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으로 1991년에 폐지되었다.
- 3) 항공사 동맹제라고도 하며 스타 얼라이언스(Star Alliance), 원 월드(One World), 스카이 팀(Sky Team), 벨류 얼라이언스(Value Alliance)의 네 개가 있다.
- 4) 1kg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말한다.
- 5) 잠비아의 카피리무포시(Kapiri Mposhi)에서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까지 연결하는 철도이다.
- 6) 환율의 안정화에 관한 합의를 통칭하는 것으로, 1985년 9월 22일 일본,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의 재무관련 장관과 중앙은행장이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해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 참고문헌

宮路秀作, 2017, “アウトリーチのための「接点」,” 地理 62(12), pp.83-85.

교신: 韓柱成, 06374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01(전화: 02-416-0316, 이메일: jshan@chungbuk.ac.kr)

Correspondence: Ju-Seong Han, Jagok-dong, 101 Jagok-ro, Gangnam-gu, Seoul city, 06374 Korea (phone: 02-416-0316, e-mail: jshan@chungbuk.ac.kr)